

# 통학차량 운전자 · 안전지도사 교육 실시

-일시: 2021.8.26.(목) 3:30~4:00. 장소: 교무실. 강사: 원감-

전주송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 [도로교통법-앞지르기, 안전거리, 주차·정차 요령]

### 1. 앞지르기 방법

#### 1) 앞지르기할 때의 주의사항

- 부득이 앞지르기를 할 경우에는 전방 및 반대 방향의 교통 상황을 충분히 살펴 안전이 확인된 상태에서만 한다.
- 앞지르기는 반드시 좌측으로 하고 앞지르기에 필요한 시간과 거리를 사전에 확인하되, 앞차와의 속도 차가 최소한 시속 20km 이상이 되지 않으면 앞지르기에 걸리는 시간과 거리가 길어져서 위험하다.
-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으면서 앞지르기하는 것은 마주오는 차와의 충돌 위험성이 높으므로 절대 삼간다.

#### 2) 앞지르기 순서와 방법

- 앞지르기 금지 장소 여부를 확인한다.
- 전방의 안전을 확인하는 동시에 후사경으로 좌측 및 좌 후방을 확인한다.
- 좌측의 방향 지시기를 켜다.
- 약 3초 후 최고 속도의 제한 범위 내에서 가속하면서 진로를 천천히 좌측으로 하고, 안전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앞차의 좌측을 통과한다.
- 충분한 거리가 확보되면 우측 방향 지시기를 켜다.
- 앞지르기한 차가 후사경으로 앞지르기당한 차를 볼 수 있는 거리까지 주행한 후 진로를 서서히 우측으로 바꾼다.
- 방향 지시기를 끈다.

#### 3) 앞지르기 금지 시기

- 앞차가 좌측으로 진로를 바꾸려고 하거나 다른 자동차를 앞지르려고 할 때
-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나란히 가고 있을 때
- 뒷차가 자기 차를 앞지르려고 할 때
- 마주오는 차의 진행을 방해하게 될 염려가 있을 때
- 앞차가 교차로나 건널목 등에서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을 때 또는 앞차가 경찰공무원 등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 방지를 위하여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을 때
- 어린이 통학버스가 어린이 또는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도로를 통행할 때에는 모든 차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 4) 앞지르기 금지 장소

-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 도로의 구부러진 곳
-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 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지에 의하여 앞지르기를 금지토록 지정한 곳

## 2. 법정속도와 안전거리

### 1) 법정 속도

#### ▶ 일반도로

- 편도 1차로 → 60km/h 이내
- 편도 2차로 이상 → 80km/h 이내

#### ▶ 자동차 전용도로

- 최저 30km/h, 최고 90km/h 이내

#### ▶ 이상 기후 시의 감속

-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 2) 안전거리의 유지

#### ▶ 안전거리 유지의 중요성

: 안전거리 유지는 추돌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의 인지 및 판단을 통해 사전에 급브레이크나 급핸들 조작을 예방할 수 있고, 안전거리는 갑자기 정지한 앞차와의 사고를 피할 수 있는 거리로서 여유 있는 운전을 가능하게 한다.

#### ▶ 안전거리

: 일반도로의 경우 속도계에 표시되는 수치에서 15를 뺀 수치의 m정도로 유지하고, 시속 80km 이상이거나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때에는 주행속도의 수치를 그대로 m로 나타낸 수치 정도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적당하다.

예를 들어, 시속 50km인 때에는 35m 정도, 시속 80km이면 최소한 80m 이상의 안전거리는 유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적절한 안전거리는 자기 차의 속도와 도로 상황 및 기상상태 등에 따라 다르므로 주행속도에 따른 정지거리를 고려하여 충분히 유지하여야 한다.

## 3. 주차 · 정차 요령

### 1) 주·정차의 정의

- [주차]란 운전자가 차를 계속하여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하며, [정차]는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뜻한다.

### 2) 안전한 주·정차 요령

-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있는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에,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50cm 이상 거리를 띄우고 세워야 한다.
- 도로의 우측·황색 실선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되며, 황색 점선의 곳에는 정차가 가능하다.
- 건물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의 곳은 주·정차를 금지한다.
- 야간 주·정차 시에는 차폭등·미등을 켜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장치·시정 장치 등도 확인한다.
- 경사진 장소에서는 가능한 한 주차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경사진 장소에서 꺾목을 받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에도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는 곳은 주차하지 않는다.